

‘왕사남’ 이어 안평대군 온다

국립창극단, 19~29일 ‘보허자: 허공을 걷는 자’... 계유정난 배경에 상상력 덧입힌 섬세한 서사 호평

조선 제7대 왕 세조와 그의 권력욕으로 희생된 세조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역사 속 이야기가 우리 소리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으로 펼쳐진다.

국립창극단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창극 ‘보허자(步虛子): 허공을 걷는 자’를 공연한다. 지난해 초연 당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덧입힌 섬세한 서사로 호평받은 작품을 1년 만에 선보이는 것.

작품은 수양대군이 동생 안평대군과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는 계유정난(1453년)을 배경으로 하되 참혹한 비극 자체보다 27년 뒤 역사의 어둠 속에 남겨진 이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극본을 쓴 배삼식 작가는 안평의 죽음을 증명할 기록이 없다는 점에 착안, 그의 딸 ‘무심’과 화가 ‘안견’, 애첩 ‘대어향’ 등 안평을 둘러싼 실록 속 인물들을 재해석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 꺾인 인물들이 안평의 꿈을 그린 ‘몽유도원도’를 찾아 대자암으로 떠나는 여정은 자유로운 삶을 향한 갈망을 표현했다.

연출을 맡은 김정은 초연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장면을 보완해 더욱 완성도 있는 전개를 완성했다.

김 연출은 “상실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며 “폐허가 된 현실 위로 흠날리는 복숭아 꽃잎처럼 관객들의 삶에 깊은 공감과 고요한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거문고, 25현 가야금, 생황, 양금 등 선율악기 위주의 반주로 서정성을 극대화했고, 궁중음악인 보허자의 절을 살리기 위해 그간 창극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은 철현금, 운라, 편종, 편경을 적극 활용한 것도 특징이다. 국악기 편성의 14인조 라이브 연주로 몰입감을 높이고, 현대무용가 권령은의 안무가 더해져 인물의 내면을 현대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준다. 소리꾼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각각 안평과 안견 역으로 분한다. ‘수양’은 이광복, 안평의 딸 ‘무심’ 역은 민은경이 연기한다.

R석 5만 원, S석 3만5000원, A석 2만 원. 예매·문의는 국립극장 홈페이지(www.ntok.go.kr) 또는 전화(02-2280-4114)로 하면 된다.

노성수 기자



◀ 넷플릭스 예능 ‘이서진의 달라달라’ 메인 예고편의 한 장면.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이서진의 달라달라’

믿고 보는 ‘나영석+이서진’...이번엔 텍사스다

나 PD표 여행 예능 24일 첫 공개

‘예능 콤비’ 배우 이서진과 나영석 PD가 새 작품으로 또 한번 뭉쳤다.

오는 24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예능 ‘이서진의 달라달라’는 텍사스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텍사스 덕후’ 이서진과 그를 따라나선 나영석 일행의 자유분방하고 낭만 넘치는 텍사스 방랑 여행을 담았다.

그동안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윤식당’ 등에서 호흡을 맞추며 15년간 우정을 쌓아온 두 사람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처음으로 의기투합했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서는 이서진 특유의 보조개 만발한 광대 승천 미소를 통해 텍사스 여행의 설렘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과연 이서진이 보장하는 텍사스의 ‘맛’과 ‘재미’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를 더한다.

함께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텍사스 여행기를 짐작케 한다.

텍사스를 향한 밀도 끝도 없는 자부심을 드러내며 시작부터 평범함을 거부한 이서진. 이어지는 여행 코스 역시 예측 불가다.

그는 서부극에 빙의라도 한 듯 ‘카우보이’ 사격 체험으로 맞짱을 폭발하는가 하면 풋볼 스타디움에서는 ‘달라스 카우보이스’ 티셔츠와 함께 숨겨왔던 ‘덕심’을 드러낸다. 여기에 미 항공우주국(NASA) 투어와 추억을 소환하는 롤러장까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분방한 여행이 유쾌한 웃음을 더한다.

이서진의 가이드 점수를 ‘10점 만점’이라고 매긴 나 PD는 “워낙 사장님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여행이라 만약 여행사였다면 환불 요청이 엄청났겠지만, 길치에 검색치라서 남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완벽한 가이드였다”며 “어딜 가든 그곳의 기념품을 사고 챙기는 이서진의 색다른 모습도 발견할 수 있으니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노성수 기자



◀ 걸그룹 이프아이. 사진=하이넷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이프아이’ 새 프로필 사진 공개

청순 매력으로 완성한 ‘5인 5색’...시선집중

공백기 청초한 모습으로 근황 전해

5인조 걸그룹 이프아이(ifeye)가 한층 깊어진 청순미를 과시하며 근황을 알렸다.

이프아이(카시아, 라희, 원화연, 태린, 미유)는 최근 공식 SNS를 통해 새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

다섯 멤버들은 순백의 의상을 입고 긴 생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카메라를 향해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다. 깔끔한 배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타일링은 멤버들의 맑고 청초한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각기 다른 분위기의 ‘5인 5색’ 매력

이 돋보인다. 멤버들은 각자 단정하면서 청량하거나,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 어우러지며 자연스럽게 개성을 표현했다.

이번 프로필 공개는 최근 공백기를 활용해 팀의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이프아이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이프아이는 멤버들의 컨디션 관리와 팀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휴식기를 전략적인 재정비의 시간으로 활용하며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프아이는 지난해 4월 데뷔 앨범 ‘엘루블루(ERLU BLUE)’로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같은 해 7월 두 번째 미니앨범 물결 ‘낭’ Pt. 2 ‘sweet tang’으로 존재감을 확장해 왔다.

노성수 기자